

한화석유화학, 지속가능경영 B+

환경운동연합, 사회·윤리·환경 가치 평가 ... 유한킴벌리가 1위

한화석유화학이 기업의 사회적·윤리적·환경적 가치를 종합 평가한 <지속가능경영지수(SMI)>에서 상위권인 B+ 등급을 받았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35대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기후보호에 앞장서는지 등 7개 항목을 평가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유한킴벌리가 68.6점으로 가장 높았고 한화석유화학은 65점으로 4위를 차지했다고 8월9일 발표했다.

한화석유화학은 환경경영에서 8.0점(10점 만점), 인권노동권과 사회발전에서 각각 7.5점을 받은 반면, 공정경쟁에서 5.5점, 기후보호는 4.5점을 받았다.

삼성전기는 67.1점, 삼성SDI는 66.4점으로, 유한킴벌리와 한화석유화학을 포함한 4사는 65-69점대의 점수를 받아 B+등급을 받았다.

B등급(60-64점)을 받은 기업은 포스코(64.3점), 대우조선해양(62.9점), 아시아나항공(62.1점), 현대제철(62.1점), LG필립스LCD(61.4점), 하이닉스반도체(61.4점), SK텔레콤(61.1점), KT(60점) 순이다.

B-등급(55-59점)에는 LG전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한국전력공사, LG화학, 동국제강, CJ, 삼성코닝정밀유리, 현대중공업, SK인천정유, 삼성전자가 포함됐다.

C+등급(50-54점)은 SK, 삼성중공업, 동부제강, 삼성토탈, 현대건설,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받았다.

두산중공업(49.3점)과 삼성석유화학(48.6점)이 C등급(45-49점)을 받았고, 삼성에버랜드(44.3점)가 C-등급(40-4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2006년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삼성전자는 공동 22위였고, 현대자동차는 15위, SK는 25위, LG전자는 13위로 집계됐다.

1위를 차지한 유한킴벌리는 환경경영과 공정경쟁, 사회발전 항목에서 8점을 받은 반면, 지배구조 항목에서 4.5점을 받았고, 최하위에 오른 삼성에버랜드는 기후보호 3점, 지배구조 3.5점, 환경경영·인권노동권·공정경쟁 항목에서 각각 4.5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경영지수 산출을 위해 환경경영 실천도, 기후보호, 소비자 보호, 인권과 노동권 보호, 지배구조의 건전성, 공정경쟁, 사회발전 기여도 등 7개 항목을 평가했다.

2005년 발표에서는 LG필립스LCD가 62.7점으로 1위, LG화학(62.5점), 한화석유화학(62.4점), 삼성SDI(61.9점), 포스코(61.4점), 유한킴벌리(60.8점)가 뒤를 이었고 삼성전자는 60.5점으로 7위에 올랐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09>